

공정방송 깃발아래 전국이 하나로 ·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문화방송 노보

223호

2017년 4월 12일

발행인 김연국 / 편집인 하유신 /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안로 255 MBC미디어센터 11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트위터@saveourmbc

무단협 1547원째

타임오프해지 479원째

지명피업 374원째

당신은 기다려서다



조합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4월 26일, 새 세상을 함께 준비해요

127th 세계 노동절 ‘함께의 날’
4.26(수) 11:30 ~ 13:30
서울 상암광장

보직 국장 · 부장도 조합원 자격 유지된다

서울지부 규약 개정... ‘보직자 자동탈퇴’ 규정 삭제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조합)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사실상 전 사원으로 확대됐다. 조합은 지난달 28일 제12기 서울지부 1차 정기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서울지부 운영 규약(8조)을 개정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본사 전사원(계약직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합 가입과 그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노무 업무 담당자 ▲경비 · 비상계획 업무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이 일시 유예된다.

이번 규약 개정에 따라 보직관리자 등에 대해 적용됐던 종전의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은 삭제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직 발령을 받거나 노무 업무 부서로 전보되는 조합 소속 사원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합은 지난 2014년 11월 이른바 ‘보직자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을 운영 규약에 신설했다. 당시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보직을 미끼로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조합 탄압을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조합은 당시 조합원들의 보직 진출 기회를 막지 않고 회사의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 탈퇴’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만든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은 오히려 회사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강력한 대응을 원천 차단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도 사측은 보직자 뿐 아니라 현업에서 배제된 기자나 PD 직군 사원들에게도 ‘현업 복귀 발령’을 미끼로 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 이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조합은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의 삭제를 계기로 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조합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례 수집에 돌입했다. 신고된 내용은 법적 검토를 거쳐, 회사는 물론 불법 행위 당사자인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와 별도로 공정방송 복원과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재가입과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사원들에 대해서도 조합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 범위는 직원(계약직포함)으로 하되,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직책 및 직무를 담당하는 기간 중에는 조합 가입이 유보된다. 기존 조합원이 아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탈퇴 처리하며, 사유가 소멸되는 경우 본인의 명시적 탈퇴 의사가 없을시, 의사 확인 후 자동 가입 처리 한다. 1. 보직관리자 2. 노무업무 담당자	제8조 (조합원의 범위) 조합원 범위는 직원(계약직 포함)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되 그 권리와 의무를 일시 유예한다. 각호의 조건이 소멸할 시 그 익일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회복한다. 1. 노무업무 담당자 2. 경비, 비상계획 업무 담당자

‘보직 미끼’ 조합탈퇴 종용에 법적 대응 나선다

조합, 부당노동행위사례 무더기 입수... ‘불법 행위’ 신고센터 가동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는 MBC 경영진의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극악(極惡)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두드러진 것은 불법적인 ‘조합 탈퇴 종용’이다. 조합원들에게 보직을 제안하면서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탈퇴 종용은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행위이다. 조합이 개정 이전 운영 규약에서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자동 탈퇴 이전에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라”며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있다.

조합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국장급 보직자는 A부장에게 “신임 보직자니까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조합원인 A부장이 “자동탈퇴 규정이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 여러 차례 반문했으나, 해당 국장은 집요하게 탈퇴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인 B부장 역시 보직부장에 임명된 뒤, 수차례에 걸쳐 조합자진 탈퇴를 요구받았고 결국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유사한 불법 탈퇴 종용 사례가 계속 노동조합에 접수되고 있다.

조합탈퇴 종용, 2년 이하 징역 불법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일체의 행위” 모두 부당노동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조합 규약과 무관하게, 사용자 측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거나 종용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란 뜻이다.

관련자 진술과 증언 등 잇따른 ‘불법 탈퇴 종용’ 증거를 확보한 노동조합은

추가 사례 수집에 나섰다.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된 경영진과 보직자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하고 모두 개별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내에서 자행되는 노조 불법 탈퇴 종용 등 모든 형태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와 친구 맺은 뒤
1대1 채팅 기능 통해 신고

② 전화 신고
(02)789-3881, 1931~1932

‘MBC 재건’ 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조합원 수 증가세... 2012년 파업 이후 입사자 올해들어 27명 가입

조합은 4월 한 달간 조합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조직 확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지부 대의원회는 지부 운영 규약에서 ‘보직자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을 삭제하고 보직 국장과 부장들에게도 조합 가입의 문을 열었다. 조합의 기존 규약에 의해 조합에서 자동 탈퇴된 전·현직 보직관리자와 노무 담당자는 물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사측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스스로 조합을 떠난 직원들의 재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공정방송’을 실현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한다는 강령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의에 동의하는 MBC 구성원은 누구라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파업이 끝난 이후 다양한 고용 형태로 입사한 경력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합의 문을 열 계획이다.

4월 대대적 조합원 확대 추진

MBC 구성원들은 김재철 체제 이후 수많은 해고와 부당징계, 부당전보, 탈퇴 종용 등 사상 유례 없는 탄압 속에서도, 30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을 곳곳이 지켜냈다. 최근 신규 가입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사원 중 올해 들어서만 27명이 조합에 가입했다. 이번 조합원 확대 사업을 통해 조합은 MBC 내

의 명실상부한 절대 다수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협약 복원’ 등 회사와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공정방송 실현과 근로복지 향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원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식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상대적으로 쉽게 노출돼 있는 계약직, 업무직 사원들은 물론 일반직 사원들에 대한 ‘노무 상담’ 행사도 오는 17일과 19일 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전국대의원회 2016년 결산 · 2017년 예산 승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3월 31일 1차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2016년도 회계 결산 보고 및 2017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표-1	2016.3~2017.2 / 단위: 원		
항목	2016년 예산	2016년 결산	2017년 예산
수입 총계(A)	1,889,753,915	1,847,981,251	1,763,386,233
이월금	807,753,915	807,753,915	681,386,233
조합비	1,080,000,000	1,004,138,210	1,080,000,000
예금이자	2,000,000	768,726	2,000,000
기타	-	35,320,400	-
지출 총계(B)	1,655,000,000	1,166,595,018	1,433,000,000
본부운영비	875,000,000	782,161,711	823,000,000
예비비(기타)	350,000,000	2,000,000	200,000,000
지부운영비	430,000,000	382,433,307	410,000,000
계 = (A)-(B)	234,753,915	681,386,233	330,386,233

표-2	쟁의기금(임금보전)	
구분	2016년 결산 내역	2017년 예산
적립	892,515,916	1,080,000,000
집행	858,285,325	1,080,000,000

근로 조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노무사와의 ‘런치 미팅’에 초대합니다

- 상담일시 - 1차 : 2017.4.17. (월) 12:00~13:00
- 2차 : 2017.4.19. (수) 12:00~13:00
- 장소 : 언론노조 MBC본부 사무실 (미디어센터 11층)
- 대상 : MBC 구성원 누구나
- 상담 내용 - 부당노동행위
- 근로시간, 휴게/휴가/휴직제도 관련
- 업무상 질병 등

♣점심 도시락을 준비해놓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용마 기자
쾌유를 기원하는
응원게좌

하나은행 850-910016-27704
예금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대선보도
감시단
보고서

왜 ‘법정제재’는 되풀이되는가?

2012 대선 · 2016 총선 이어 연거푸 불명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4월1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월 20일 MBC <뉴스데스크>가 다른 정당의 예비 후보 소식은 전하면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예비후보들의 소식을 보도하지 않고 누락한 것에 대해 ‘주의’ 결정을 내렸다. 법정 제재인 ‘주의’는 과징금 부과 · 경고 등에 이은 중징계 조치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20일 <뉴스데스크> 보도가 ‘보도의 균등한 기회 보장과 형평성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달 21일 <백분토론>에 출연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뒤, MBC가 <뉴스투데이>와 <뉴스데스크>를 통해 거듭 문 후보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도 ‘의견제시’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주요 선거 때마다 MBC는 반복해서 법정 제재 등 각종 제재를 받고 있다. 5년 전인 2012년 10월 23일, MBC는 대선관련 보도와 관련해 법정제재를 받았다. MBC는 안철수 후보박사학위 논문이 서울대 서모 교수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기사에서 동명이인의 다른 논문을 비교 논문으로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포함하지도 않았다는 이유였다. 한마디로 황당 한 리포트였다.



‘안철수 논문’
관련기사 QR 코드

1년 전인 2016년 총선 때도 MBC는 법정제재를 받았다. 아예 팩트를 완전히 틀리게 보도하거나,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에 있는 차이를 편파적으로 보도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MBC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게 됐다. 지상파 방송사 가운데 19대 대선 보도와 관련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건 안타깝게도 MBC가 최초다.

(1) MBC가 대선 후보들을 대하는 방식

3월 말에서 4월 첫 주는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모니터단은 일찌감치 (2월16일) 후보를 확정지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 MBC 뉴스데스크가 유승민(3/28), 홍준표(3/31), 문재인(4/3), 안철수(4/4) 등 4명의 후보를 다루는 방식을 살펴봤다.

MBC는 문재인(5), 홍준표 · 안철수(3), 유승민(2)의 비중으로 각 후보를 보도했다. 유승민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후보확정 스트레이트, ㉡누구인가?, ㉢대답을 다뤘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의 경우 특이하게도 후보로 확정된 당일 이른바 ‘아들 의혹’ 관련 기사 2건을 추가로 배치했다. ‘방송사고’ 탓이라고 하지만 각각 8, 9번째 소식으로 나간 이 두 건의 기사는 전국의 시청자가 볼 수 있었고 후보와의 대담은 수도권 시청자들만 볼 수 있었다.

<표1>은 기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공통적인 기사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대목은 역시 ㉡누구인가? 쪽이었는데, 홍준표와 안철수의 경우 그 인물에 중심을 두고 있는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상당한 분량을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할애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강조하는 ‘노무현 수뢰 공동책임’을 언급했다.

	유승민 / 3월28일	홍준표 / 3월31일	문재인 / 4월3일	안철수 / 4월4일
리포트수	2	3	5	3
㉠ 후보확정 스트레이트	1) 리드 2) 경선지지율 3) 현장을 ‘보수의 희망’ 4) 경력 5) 대통령과 총돌 및 바른정당 창당 6) 정책적 노선 7) 현장을 “경제정의 및 공정한 시장경제” 8) 극복과제 9) 대선체제 전환	1) 리드 2) 경선지지율 3) 후보 장점 4) 현장을 “강력한 우파 정부 수립” 5) 후보의 전략 ‘보수연합 촉구’ 6) 현장을 “계파가 문제” 7) 공약 2가지 8) 후보의 강점 9) 현장을 “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10) 경쟁후보 ‘대선 승리 위해 협력하겠다’ 11) 대선체제 전환	1) 현장을 리드 2) 리드 3) 경선지지율 4) 본선승리 자신감 5) 현장을 “당당히 집권하는 새역사” 6) 화합 강조 7) 현장을 8) 공약 ‘광화문 대통령 시대’ 9) 경선 상황 10) 안희정 현장을 “패권정치 안돼” 11) 이재명 현장을 “기득권이 문제” 12) 대선행보 현충원 및 봉하마을	1) 현장을 리드 2) 리드 3) 경선지지율 4) 현장을 “비전과 리더십” 5) 공약 ‘4차 산업혁명’ 6) 현장을 “계파 치우치면 안돼” 7) 후보의 전략 ‘국민에 의한 연대’ 8) 경쟁상대는 문재인 9) 현장을 “문재인은 무능력한 상속자” 10) 경쟁후보들 힘을 합치기로 11) 대선체제 전환
㉡누구인가	없음	1) 홍준표의 일생, 모래시계 검사 (방송 자막으로 부연설명) 2) 1996년 싱크 “변화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정권 상대로 한 저격수 4) 2003년 싱크 “항응 받으면 도둑” 5) 비주류였으나 당대표까지.. 6) 2011년 싱크 “변방에서 중심으로” 7) 정치적 위기에서 경남지사로 재기 8) 성완중 리스트로 정치적 위기 맞았으나 2심 무죄, 결국 후보까지 단숨에 거머쥐어” 9) 싱크 상대후보 공격 문재인은 “자기 대장이 뇌물먹고 자살한 사람” 10) 자유한국당 반응	1) 문재인 일생 2) 노무현과의 인연 3) 노무현시절 비서실장 4) 노무현 정권 2인자 5) 노무현 수뢰혐의 당시 옆을 지켜 6) 2012년 패배 7) 2012년 싱크 “사과합니다” 8) 당대표 재기의 발판 9) 2015년 싱크 “박근혜와 전면전” 10) 친문재인 패권 11) 탄핵정국 압도적 지지	1) 대통령후보 사퇴 2) 2012년 싱크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3) 싱크를 위한 리드 4) 2017년 싱크 “대선 승리 위해 보답하겠습니다.” 5) 의사로 출발한 안철수 6) 백신개발자로 거듭나 7) 1995년 싱크 “백신 혼자서 만들었을 때” 8) 벤처기업인 그리고 교수로 변신 9) 대중과 가까워지고 청춘콘서트로 호응 10) 문재인과 결별 뒤 국민의당 창당 11) 2015년 싱크 민주당 비판 “기득권 지키기에 빠져” 12) 창당 두 달 만에 원내 3당 만들어
㉢대답	1) 지지율 끌어올릴 수 있는 복안 2) 보수 단일화 3) 문재인 대세론 4) 사드배치 5) 박근혜 수사에 대한 입장	1) 경선 승리 비결 2) 문재인 대세론 대책 3) 연대론에 대한 의견 4) 대통령 돼야하는 이유	1) 경선 승리 요인 2) 중도층 이탈 대책 3) 비문재인 연대 극복 방안 4) 대표 공약 : 일자리 대통령	1) 선출이유 : 변화 바라는 국민 열망 2) 후보 연대론 3) 문재인 대세론 극복방안 4) 대표공약 : 교육개혁
㉣검증1			1) 제2의 정유라 사건 2) 제2의 정유라 사건 3) 싱크 - 자유한국당 대변인 “제2의 정유라 사건” 4) 직접 해명하고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라 5) 사실이라면 엄청난 부메랑 6) 싱크 - 국민의당 원내대표 : “직권남용 문제로 갈 수 있다” 7) 독재적 발상 8) 바른정당 국회 청문회 요구 9) 싱크 - 바른정당 원내대표 :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뺄자’ 그러고” 10) 민주당, 대응할 가치없다 구두논평	
㉣검증2			아들 특혜의혹	

MBC는 3월 31일 홍준표 후보의 ⑥누구인가? 꼭지에 서도 느닷없이 "민주당 1등 하는 후보는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입니다." 라는 현장을 사용한다.

④후보확정 스트레이트에서도 차이가 난다. 특히 홍 후보와 안 후보의 경우, 경선에 참여한 다른 후보들이 승복한 모양새를 보여준 반면 문재인 후보의 경우,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의 경선중 연설 장면을 통해 각각 "패권정치", "기득권"이라는 단어를 등장시켰다.

SBS나 KBS의 메인뉴스들은 MBC가 했던 ⑥누구인가?는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 ④후보확정 스트레이트를 다루는 방식도 MBC와 아주 달랐다.

(2) MBC '유사 검증' 보도의 실체와 구조

앞서 거론한 것처럼 문재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 3일, 정치부(부장 김기현)는 대선 후보 확정과 별개로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된 두 개의 기사를 뉴스데스크에 내보냈다. 이 두 개의 기사내용과 구성은 어떠한지 살펴봤다.

① "마 고마해!" 문 아들 특혜 의혹 공방/ 장성호

해당 기사에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공세를 기자가 쓴 기사6줄과 각 정당의 인터뷰 3개를 배치로 의혹을 부각시켰다. 문재인 후보측의 해명은 "반복되는 정치 공세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어서 대응할 가치도 없다" 는 구두 논평 한 문장을 소개하는 데 그쳤다.

② 文 아들, 의혹 내용은? / 류병수

②번 기사에선 그 성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의혹을 제기하는 주체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은 채 모두 7가지의 의혹을 연달아 나열했다. 그런데 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했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측의 해명도 찾아볼 수 없다. 어떤 점이 규명이 됐고, 어떤 점은 의혹이 해소가 안됐는지 설명하지 않는다.

③ 문재인 잇단 의혹...

盧 친인척 비리' 은폐했나? / 육덕수

4월 5일 ③번 기사에선 노골적으로 문재인 후보 측의 반론을 무시한 정황까지 드러난다. 이 리포트는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고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은폐 개입 의혹과 함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아들의 취업 응시원서 위조 가능성 의혹' 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문 후보 측은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마무리한다.

2012년 안철수 논문표절 보도 당시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시 기자(현원섭)는 안철수 측 반론 대신 기사에 <이런 의혹에 대해 안철수 후보측은 "후보와 논의해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라는 문구를 포함시켰고, 이에 대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송을 불과 2시간여 앞둔 시점에서 안 후보 측에 해명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문제삼았다. '법정제재' 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였다.

참고로 같은 날 KBS는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을 보도하면서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문서를 가지고 의혹 제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진실 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문 후보에 대한 공세가 목적인다고 반박했습니다" 라고 문 후보 측의 반론을 실었다. SBS 역시" 문 후보 측은출

처가 불분명한 문서로 의혹만 제기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라고 비슷한 내용을 뉴스에 반영했다.

대선보도 감시단은 "취재를 안 한 것인지, '공식입장'이라는 단어로 해명의 범위를 축소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고 지적했다.

위의 세 기사를 포함해 3월 21일 부터 문재인 후보의 아들 취업 의혹이 포함된 기사는 5건이었다. 앞서 지적했다 반론이 없는 기사도 있었고, 대부분 반론이 부실했다.

감시단이 이를 양적으로 분류해본 결과, 뉴스데스크는 관련 의혹을 제기하거나 공격하는데 문장 23개와 인터뷰 8개를 할애했다. 반면 해명과 관련한 문장은 4개에 불과했다. 인터뷰는 하나도 없었다. 그나마 해명관련한 문장 중 하나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는 내용이 었다.

이런 보도 행태는 공방을 다루면서 각 정치세력간 균형을 고려하지 않고 편파적이었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지키지 않았고, 사실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사실보도 의무를 저버렸다고 할 수 있다.

선거방송 심의특별규정은 제6조 형평성 항목에서 "후보자과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할 것을, 제8조(객관성)에서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12조 (사실보도)에서는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MBC 역시 선거방송 준칙을 통해 "흑색선전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철저한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폭로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검증' 타이틀 못 붙이는 속내?

최근 공영방송 KBS는 MBC와 비교할 때 '대통령 선거' 라는 의제를 소홀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 왔다. 그런데 4월 10일 [대선후보 검증]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문재인 후보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리포트를 내놨다. '타이틀' 을 달았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검증의 잣대를 적용하겠다' 는 뜻으로 보인다.

후보에 대한 이같은 검증은 다른 매체에서 시작된 지 이미 오래다. SBS의 경우 [사실은]이라는 별도의 코너를 통해 문재인은 물론 안철수,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검증을 시도하고 있다. 그 날짜와 제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2〉 SBS 8뉴스

3월 25일	문재인 아들 취업 특혜 논란
3월 31일	홍준표 "문재인이 세월호 선사 파산관재인" 따져보니
4월 4일	신연희 구청장의 '카톡' ... 사실은
4월 5일	안철수 부인 '1+1' 특혜 채용? 검증해 보니
4월 6일	지사직 사퇴 안 한 홍준표... '꿈수 사퇴' 논란
4월 7일	안 부인 '서울대 채용 특혜 의혹' ... 검증된 '사실'과 '거짓' 총정리
4월 7일	홍준표 '꿈수 사퇴'? , 사실은
4월 7일	문 아들 이력서 논란... 제출 시기, 내용 오류?

종합편성 채널들도 이런 '검증' 보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JTBC도 [팩트체크] 코너를 통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즉 SBS나 JTBC의 경우, 문재인 후보 아들 문제를 △취재와 △캠프에 대한 해명 요구, △받아낸 해명에 대한 추가 취재 및 추가 해명요구 등의 과정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판단의 기회' 를 제공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어디까지 취재로 확인되었고 어떤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 주장과 팩트를 구분해서 속시원하게 보여준다는 점이다.

이들 보도와 비교할 때 MBC의 보도는 완전히 대척점에 놓여있다. 취재를 통한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의혹 제기하는 상대 당의 입을 빌어 '떠나르기' 를 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이런 '유사 검증' 의 대상이 특정한 대상에 집착하듯 집중되고 있는데 동시에 아예 메인뉴스에서 기사 자체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누락되는 사안들도 많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에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가짜 뉴스' 를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홍준표 후보는 보궐 선거를 막기 위해 도지사 사퇴 시점을 늦추는 '꿈수' 를 썼다는 의혹으로 선거관리위원회 회로부터 '사퇴 전까지 선거 운동을 해선 안된다' 는 공문을 받았다. 그러나 이 소식은 MBC <뉴스데스크>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4월 8일 <뉴스데스크>에서 "홍준표 후보는 내일(9일) 경남도지사직 사퇴를 기점으로 대선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라고 한 줄로 소개했을 뿐이다.

반면 KBS와 SBS는 선관위가 홍준표 후보 측에 선거법 준수 촉구 공문을 보낸 4월 6일 당일에 해당 논란을 보도했다. KBS는 메인뉴스를 통해 홍 후보의 경남도지사 사퇴 시점에 대한 논란을 보도했고, SBS는 앞서 제시했듯이 두 소식 모두 "꿈수 사퇴 논란"(4월 6일)과 "신연희 '블랙리스트 필요 글' ... 뭔지 모르고 공유했다?"(4월 1일) <사실은>이라는 메인 뉴스의 심층 코너를 통해 소개했다.

MBC는 4월 10일에서야 이 문제를 다루긴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가관이다. 홍준표 자신의 현장을 포함해 4문장으로 다뤘다. 그나마 문제를 제기하는 문장들, 나머지 두 문장(1문장+현장음)은 홍준표 후보의 해명에 할애했다.

국민의당 경선 불법 동원과 안철수 후보의 부인 특혜 채용 등 다른 의혹 역시 표면적으로 드러난 후보 진영사이의 정치 공세를 전하는 데에만 급급했다. KBS나 SBS가 별도의 리포트로 논란을 다룬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지난주는 여론 조사에서 양강 구도가 확인된 시점이었다.

불친절한 MBC뉴스...공약 검증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의 대담을 진행하면서 정책이나 공약을 묻고 검증하는 것이 아닌, 산술적인 '표 싸움'에만 급급하다는 것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지지층이 옮겨간다는 데 대한 대책"(문재인 후보, 4월 3일)이라거나, "문재인 대세론에 대한 평가 및 대책"(안철수 후보, 4월 4일/ 홍준표 후보, 3월 31일)을 묻는 데 그쳐 실질적으로 유권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지 못했다는 게 대선보도 감시단의 평가다. 또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에 대한 동정이나 공약이 뉴스에서 자주 배제되고 있는 점도 문제점이었다.

드라마 왕국 MBC, 누가 무너뜨렸나

MBC는 자타 공인 ‘드라마의 왕국’이었다. 시청률, 영향력 뿐만 아니라, 늘 새로운 형식의 실험과 전파에 앞장섰고, 신진 등단의 요람이었으며, 화제의 중심이었다. 이 드라마의 왕국은 현재 흔적도 없고 ‘막장의 왕국’만 남아 있다. 이는 상대사의 시기 어린 폼하나 외부 단체 모니터의 ‘도덕교과서’ 같은 발언이 아니다. 우리 회사의 고참 드라마 피디 A의 엄정한 진단이다. 대체 어떤 상황이었기에 현직 고참 피디 입에서 이런 자조가 나오는가.

무너진 뉴스의 희생양 전락한 드라마

현재 MBC는 메인 뉴스인 8시 뉴스데스크 앞 뒤로 일일드라마를 한 편씩 제작방영 중이다. 2012년 11월 가을, 당시 사장이던 김재철씨의 갑작스런 지시로, 수십 년 간 9시에서 자리를 지켰던 전통의 뉴스데스크가 8시로 이동하였다. 당시 보도부문 구성원들과 편성, 광고 등의 사내에 관련 전 부문에서 일제히 반대와 우려를 표명했으나, 김 전 사장의 독단적인 지시는 강행되었다. 그 후 김 전 사장 등 당시의 경영진은 그들의 8시 뉴스 시간 변경의 주된 주장인 ‘시청률 상승’이 뜻대로 되지 않자, 2013년 봄, 뉴스데스크 앞 뒤로 일일드라마 배치하는 기형적인 편성을 지시했다. 떨어지고 있는 뉴스데스크 시청률을 견인하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었다. 저녁 메인 뉴스 앞뒤로 일일 드라마들 두 개 연달아 배치하는 것은 한국 지상파 방송에선 지금까지도 유례 없는 일이고, SBS 개국 때 같은 신생 방송사에서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던 일이다. 당시 이런 식의 배치에 대해 편성과 드라마국 등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 목소리를 냈으나 묵살되었다.

그로부터 4년이 흐르는 동안 편성 책임자 회의나 기획회의 등에서 끊임없이 메인 뉴스 앞 뒤의 일일 드라마를 하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제기되었으나, 경영진은 일관되게 거부했다. 중견 드라마 피디인 B는 “드라마 본부는 뉴스 앞 뒤에 일일 드라마 붙이는 것을 계속 반대해왔다. 전임 본부장도 자기가 이런 저런 회의에서 계속 저녁 일일 드라마 중 하나 폐지를 주장했지만, 위에서 반대해 해결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경영진의 집요한 압력은 뉴스 시청률이 2% 대까지 급락한 작년 하반기부터 더욱 강고해졌다.

또 다른 중견 드라마 피디 C는 “작년 말부터는 드라마 본부장이 임원회의에서 얘기도 꺼내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면서 “드라마 하나 더 만들어서 뉴스 뒤에 끼는 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전했다. 가뜰이나 치열한 드라마 작가와 배우 캐스팅 경쟁에서 비슷한 포맷과 내용의 저녁 일일 드라마 두 편 제작은 작가 확보와 배우 캐스팅을 몇 배 이상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 피디는 “광고주 입장에서 두 중 입맛에 맞는 드라마에 광고를 골라 넣으면 되는 게임이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상황을 김재철 전 사장 이후의 이어진 경영진이 몰랐을 리가 없다. 아니 몰랐다면 정말 심각한 무지와 무능이다. 하지만 알고도 편파적인 뉴스 사유화의 희생양으로 드라마를 이용했다면 명백한 배임 행위이다.

드라마 PD들의 대거 이탈

현재 뉴스 앞 뒤 드라마 시간대에서 각각 평균 50~60억 원대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저녁 일일 드라마 한 편만 정상화시킨다면 드라마 본부는 흑자로 전환된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영진은 경영 정상화란 명목으로 드라마 구성원들을 적자 집단으로 비난해왔다. 지난 몇 년간 그들은 뉴스 신뢰도 추락과 시청률 바닥이라는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묵묵히 일해 온 드라마 구성원들을 회사 경영에 기여하지 못하

는 집단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가 최근 6년간 드라마 피디 10여명의 퇴사로 나타났다.

몇 년 전 퇴직한 드라마 피디 D는 “웬만하면 끝까지 MBC에 남아 일하고 싶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건 좀 아니잖아?” 라는 말로 아쉬움을 표했다. 인적 자산이야 말로 MBC의 최고 자산이라고 노래했던 김재철 씨와 그의 후예들인 전임 현임 경영진들의 경영철학은 이렇게 파탄으로 귀결되었다. 새로운 실험과 시도는 여지없이 막히고 사실상 50대 이상을 소구하기 위한 천편일률적인 드라마 내용의 강요는 피디들의 대규모 이탈을 강제했다.

기획사, 배우, 작가 모두가 MBC 드라마 외면

일일 드라마의 과제작과 과편성은 드라마 제작의 메커니즘 상 주말 특별기획까지도 영향이 이어졌다. 퇴직한 드라마 피디 D는 “작가진의 부족으로 아침이나 저녁 일일 드라마에서 생존(?)한 작가들을 주말 기획 드라마로 다시 기용하고 있다. 타사들이 주말에 참신한 기획이나 시도를 할 때 우리는 아침 막장 드라마의 변주 버전을 주말 황금 시간대에 고착하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고참 피디 A는 “맥락 없는 주인공의 연속악행과 뜬금없는 결론으로 도배된 우리 주말 드라마를 누가 보는 지는 이제 중요하지도 않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드라마가 망가지면 스테이션 이미지도 하락하는데, 어느 작가가, 어느 배우가 MBC에 나오려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도들이 간부들에게 계속 묵살되는 동안, MBC가 라이벌이라고 한 번도 상정하지도 않았던 tvN 같은 채널은 새로운 실험들이 실패와 성공을 겪으면서 나름의 노하우를 쌓고, 또 그런 선순환을 통해서 작가들이나 배우들, 더 나아가서 가수들까지 서로 OST를 하겠다고 나서는 정도까지의 위상을 확보했다. 이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막장이다. “케이블만 그런 게 아니라 KBS나 SBS도 나름 호평 받거나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드라마를 꾸준히 내고 있는데 우리만 계속 못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이미 고착되어서 역량 있는 미니시리즈나 새로운 장르를 해보려는 기존 이름 있는 작가들이 우리를 꺼리고 있다. 배우 캐스팅은 말 할 것도 없다.” 중견 드라마 피디 C의 말이다. 실제로 퇴직한 드라마 피디 F는 “캐스팅은 물론이고 작가들도 우리를 꺼리는 게 눈에 보였다. 드라마를 계속 만들고 싶은 욕심이 퇴직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다”라고 털어 놓았다. “과거 가장 핫한 자리가 MBC 미니시리즈였다면 지금은 기획사들의 선호 순서가 tvN, SBS, KBS, OCN, 그 다음이 MBC” (드라마 피디 C)라는 것이 이미 공공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드라마 왕국의 멸망과 막장 왕국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순 없을 것이다. 또한 드라마 편성 전략의 실패나 적자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자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뉴스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고 정권의 나팔수 노릇에 영혼을 팔아버린 지난 세월 동안, 최고위 경영진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조금이라도 숨기기 위해 드라마를 희생양 삼아 이용해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 직종에 만연된 신입 사원 공채의 폐지와, 경력직 채용에 대한 경영진의 집착은, 현장 인력 재생산 구조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김재철, 안광환에 이어 김장겸 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오랫동안 악영향이 남을 것이다. 그 후유증은 앞으로 최소 5년 이상 드라마 생산 구조를 좀 먹고, 콘텐츠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다”라는 드라마 피디 B의 걱정에는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MBC 뉴스 ‘나쁜 대선보도상’ 2회 수상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 반론 없이 연일 맹공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MBC 뉴스에 상복(?)이 터졌다.

언론 관련 학회와 시민사회단체 80여 곳으로 구성된 2017 대선미디어 감시연대(이하 감시연대)는 4월1주차 ‘이주의 나쁜 방송 보도’로 ‘MBC의 일방적인 문재인 후보 아들 의혹 보도’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어제(11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열렸다.(사진) 이로써 MBC 뉴스는 3월 4주차에 이어 두번째 이 상을 받았다. 감시연대는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주 ‘나쁜 방송 보도’를 선정하고 있다.

4월 1주차 상을 받은 MBC 뉴스는 취재원의 반론권조차 보장하지 않아 언론 보도의 기본 의무마저 저버렸다고 평가받았다. 해당 기간 <뉴스스퀘>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취업 의혹을 모두 5개의 리포트로 다뤘다. 이 가운데 4개의 리포트에 반론이 없거나 부실한 반론만이 짧게 실렸다. 특히 지난 3일 <채용부터 휴직까지... 꼬리 무는 의혹들> 리포트는 무려 7개의 의혹을 나열하면서 이미 감사를 통해 규명된 부분이나 문 후보의 해명 등은 단 한마디도 신지 않았다고 감시연대는 지적했다.

MBC 뉴스는 앞서 3월 4주차에도 ‘나쁜 방송 보도상’



을 수상한 바 있다. <100분 토론>에 출연해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정상화 문제를 토론한 문재인 후보에 대해 MBC 보도국은 이튿날부터 편파적인 보복 보도를 감행했다. 특히, MBC 사측의 성명을 그대로 요약한 리포트

들은 ‘뉴스 사유화’라는 비판을 받았다.

감시연대는 “나쁜 보도 선정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MBC가 벌써 2관왕을 차지했지만, 앞으로 남은 4주 동안에도 MBC는 강력한 수상 후보”라고 총평했다.

‘공정성 · 독립성 침해 언론인’ MBC 1위

언론노조, 2차 명단 발표...50명중 MBC 관련 인사 23명



정권의 언론 장악 의도에 부합해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언론인 50명의 명단이 어제(11일 · 사진) 추가로 발표됐다. 지난해 1차로 발표된 10명에 이어 MBC와 KBS, SBS, YTN 출신 인사 50명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MBC 경영진이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전 · 현직 MBC 관련 인사들이 전체의 절반 가량인 23명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 훼손, 보도 공정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언론인 탄압 등에 앞장선 전 · 현직 경영진과 이사회 이사, 보도책임자 등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50명 가운데 MBC 인사는 18명, MBC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5명이었다. 명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된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언론 관련 의제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모두 주요 개혁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이다. 권력 감시의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개혁의 대상이 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적, 사회적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은 언론인들의 행적을 계속해서 역사에 기록할 예정이다. 문제언론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 관료와 학계까지 포함해 3차 명단도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QR 코드

“MBC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 약속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 3.21 <100분 토론> 방송 중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다했다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범죄 피의자로 소환, 구속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MBC는 심하게 무너졌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언론의 자유 및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고, 해직언론인 복직은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또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지배구조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안철수 후보 / 3.30 <100분 토론> 방송 전

“제가 대통령이 되면 MBC 포함해서 공영방송들 정상화하고 해직된 분들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은 제 소신입니다. 정치하기 전에 <안철수의 생각>이란 책을 쓰면서도 이미 밝혔습니다. 그 생각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OBS ‘정리해고’ 총력 분쇄... 기금 모금 등 연대 투쟁 돌입

‘18명 정리해고’ 사측, 투쟁문화제 개최도 봉쇄

‘18명 정리 해고’라는 극악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OBS 사태를 놓고, 전국언론노조 132개 지·본부가 연대투쟁에 일제히 돌입했다.

OBS 사측은 지난달 14일 정리해고 대상자 18명의 명단을 통보한데 이어, 내일(13일)을 정리해고 확정 최종시한으로 정해놓은 상태다.

경영진이 살인적인 정리해고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지난 6일 밤 경기도 부천시 OBS 본사에서는 <정리해고 분쇄와 OBS 정상화를 위한 투쟁 문화제>가 개최됐다.

그러나 OBS 사측은 외부인 출입을 막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행사 저지에 나섰고, 참가자들은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정문을 사이에 두고 안쪽에는 OBS 조합원들이, 바깥쪽에는 다른 언론사 조합원들이 나뉘어 문화제가 진행됐다.

언론노조 유진영 OBS 지부장은 “언론인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시청자들이 방송사에 자유로이 드나들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이렇게 싸우고 있다”며 “회사가 비록 이 모양이 꼴이라고 해도, 시청자들에게 ‘그래, 제대로 해 봐’라는 이야기들을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이날 문화제의 마지막 순서는 OBS 정상화를 염원하는 ‘희망풍선’ 행사였다. OBS 지부조합원들과 문화제 참가자들은 OBS가 조속히 정상화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저마다 풍선을 날렸다.

이와 함께 전국언론노조는 OBS 정상화를 위한 기금 모금 등 연대투쟁에 돌입했다. 전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 정리해고를 분쇄하고 추가 정리해고 도발도 막자는 뜻이다. 전국언론노조 1만2천 명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1인 1만원 모금이 진행되고 있다.



모금액

조합원 1인당 1만원

계좌

농협 301-0155-8107-81
전국언론노동조합